

# 백두산의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1945년 8월 15일은 역사철사로 결박되었던 조선민족이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독립만세의 우뢰소리로 동해가 뚫고 산이 진동한 날이었으며 조선의 얼, 조선의 기상과 혈맥이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한 날이었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6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해방의 기쁨속에 남녀로소가 북돋아 부르고부른 환호성에는 세월의 이끼가 덮이지 않았다.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40여년, 나라를 잃어 민족의 존엄과 권리, 나중에는 팔과 글, 이름 석자까지 빼앗기고 갖은 학대와 굴욕을 당하며 마가를 락엽처럼, 길가의 조약돌처럼 이리 쫓기우고 저리 짓밟히는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우리 겨레였다.

망국은 누구도 원치 않았으나 국력이 약했던 우리 민족이 당한 슬픈 운명이었다.

당시 국왕이었던 고종이 조약체결을 끝까지 반대하며 백성들의 의향을 들어야 한다고 하자 일제는 《군주제국》에서 《백성의 의향은 기괴천만 한 일》이라고 하며 황제의 비준도 육체날인도 없는 날조된 조약문서를 세상에 공포하였다. 그것이 바로 온 겨레가 땅을 치며 나라잃은 설움을 목놓아울고 수많은 애국자들이 망국의 한을 품고 자결의 길을 택하게 한 1905년의 《을사5조약》이었다.

외세에 의해 수난당하면서도 군대가 약하고 총대가 약해 산천도 사람도 피눈물에 젖고 《시일야방성대곡》으로 강산을 허비던 해방전 조선의 비참한 모습을 놓

고 한 시인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피땀은 곡성을 터치었다.

수난과 질곡의 캄캄한 어둠만이 짙어 가던 이 땅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민족재생의 밝은 빛을 주시었으니 이 나라의 동터온 해방의 아침은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신 백두산에서 밝아왔으며 온 겨레는 해방의 은인 수령님의 업적을 자자손손 길이 칭송하고있다.

어린 시절부터 망국노의 설움을 피라게 체험하시며 성장하신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아버님이 쓰시던 벼루에 먹을 갈아 《조선독립》이라는 애국의 글발을 새기시었다. 력사는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를 동정하고 약한 나라 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한 전례를 알지 못하며 한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자체의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만 보존하고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신 그이께서는 겨레의 힘을 하나로 묶어세워 민족해방투쟁을 벌리기 위한 로선을 내놓으시었고 조국해방의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을 벌리는데 있다는 선군사상도 밝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히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기어이 조선을 독립할 애국의 맹세를 다지시며 아버님의 유산인 두자루의 권총을 틀어쥐시고 반일항전의 길에 나서시었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은 그이의 어깨

에 무겁게 실리었다.

그때로부터 장장 스무해!

항일의 혈전만리길을 헤치시

고 그 나날, 언제나 조국을 마

음속에 안으시고 왕재초, 보친

운동장에 달려가 조국개선연

설을 하시는 영명하신 그이의

영상을 뵈은 그날의 기쁨을

되새기며 흥분된 심정을

그대로 선물에 담았다. 폭

상을 다듬느라고 매식도 밤

잠도 잊은채 창작에 전념했

다. 마침내 작품은 완성되었

고 삽시에 온 나라에 파급되

었다.

연제인과 아버지는 그때

를 추억하며 자신이 일생

에 노래를 많이 지었지만

옳은 말이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어느 한사람의 작품이 아니

라 절세의 위인에 대한 민

족의 절대적인 숭배와 열화

같은 충송의 감정이 분출된

전민족적송가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우리 인민은

새 조선건설의 첫 걸음을 땀

고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

을 라승하고 전승의 위대한

기적을 안아왔다. 전후 재터

미우에서 자주, 자립, 자

위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

했다.

근 70년전 해방된

첫 기슭에서 메아리친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세

월을 넘어 세기를 이어 오늘

도 불멸의 혁명송가로, 강성

국가건설의 진군가로 끝없이

울리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을 민족재생의

은인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우르르며 수령송가를 지어 민

족의 자랑으로, 세계적인 작

곡가로 일생을 산 아버지처럼

경애하는 김정원친수님을 따

라 조국찬가를 더 높이 부르

며 애국충정의 한길을 걸으려

는것이 8.15에 부치는 나의 마

음이기도 하다.

피바다가극단 부총장

김 경 민

드는 침략군과의 혈전,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혹한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진 굶주림, 천교령의 눈보라...

그뿐이 아니였다.

그 나날에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 삼촌을 잃으시고 빨치산의 추도 가족에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귀중한 전우들과 영리별해야 하였던 가슴아픈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다.

그이의 항일대전의 만단사연이 자자구구에 담겨진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구독한 한 재미동포연론인은 이루 말 못할 숭엄한 감정과 걱정이 가슴속에 차올라 회고록의 갈피를 잡잡할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적시었다고 하였다.

총을 들고 달려드는 원수는 총대로 쳐부셔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새기시고 백두밀림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으로 항일대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전술로

일제침략군을 좌락좌락하시며 승전의 개가를 높이 올리시었다.

신출귀몰하며 천변만화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신묘한 전술과

전법에 일본특군의 《꽃》이라

고 하던 100만 관동군이 사시나

무 뿔뿔 전몰하였다.

김일성장군! 그 이름도 빛나는 위인의 존함은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안겨든 해방의 서광, 인생의 봄빛이었으며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게 한 승리의 기지였다.

조국해방은 수령님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빛발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 하심으로써 이룩된 민족사적위업이다.

도란에 빠졌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새 봄을 안겨주신 은인이시며 지리멸렬되어가던 이 나라의 명맥을 다시 이어놓으시고 영원한 번영과 통성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백두산의 장군 김일성주석께서는 총대를 떠난 자주성이란 있을수 없으며 총대에 녹이 쏠면 인민이 노예가 된다고, 국력도 총대에서 나오고 민족적자부심도 총대에서 나온다고 하시었다.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부터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나라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오늘도 겨레의 가슴속에 백두산의 눈바람은 탁월한 령수를 모신 민족의 력사는 무궁하며 존엄과 자주권은 굳건히 지켜진다는 진리를 뚜렷이 새겨주고있다.

## 《조선의 명장, 민족의 영웅》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목소리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외세에게 짓밟혔던 나라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민족재생과 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다.

《내가 왜 김일성장군을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김일성장군이 백두산이 낳은 조선의 명장이고 일제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투쟁을 벌려 조국을 해방한 민족의 영웅이시기때문이다. 오직 김일성장군을 따르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요 조국이 나아갈 길이다.》 몽양 려운형

《무기를 잡고 분연히 일어서서 일본의 강혹한 야만군대를 대항하여 용전분투 20년! 황막무연 만주의 광야에서 천험의 국경을 돌파하고 북조선일대에서 일본군대를 전멸케 한 우리의 민족적영웅! ... 청년영웅 김일성장군! 그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투사요, 진실한 지도자이시다.》 《해방일보》 1945년 11월 5일

《일찌기 일본제국주의압제아래 우리 민족이 암담하였던 경지에 빠져있을 때 김일성장군의 존재는 그 이름과 같이 민족의 태양이었고 희망이었다. 김장군은 지금 하나의 시민으로서 민중의 품안에 있다. 젊은 예지와 용기가 앞으로 민족발전

에 어떻게 표현될는지 조선의 관심이 아니면 안된다.》 《서울신문》 1946년 1월 《20세를 갓 넘긴 홍안의 청년장군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천재적인 령군술로 항일대전을 능숙하게 이끄셨으며 고매한 덕망과 인품으로 만사람을 크게 감복시키시었다. 그래서 광범한 대중인민들은 그분을 하늘이 낸 장수로 우러러 따랐다.》 양영동(재중동포)

《아버이수령님을 모시어 우리 민족은 재생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수령님은 우리 민족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최철산 (재중동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의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되어 자기의 오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을 되찾게 되었다. 수령님을 모시어 우리 선대들처럼 고국을 하직하고 이역만리로 흩어져 가던 숙명적이고 불행스럽던 아리랑민족의 력사가 끝장나게 되었다.》 리동철 (재로씨야동포)

본사기자

나라가 해방되어 근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국해방기념일을 맞는 나에게는 일제에게 짓밟혔던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민족재생과 강성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는 아버지수령님께 대한 사무치는 경모심이 밀물처럼 차오르고있다.

민족수난의 그 세월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애국의 길에 나서시어 20성상 항일의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외세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그이의 위인상과 업적을 그리는 내 마음속에는 문득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파도치고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난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난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옥  
...  
수령님의 만고의 업적을  
칭송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전민족적송가로, 불멸의 혁명송가로 태어난 해방된 조국의 첫 기슭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있다.

들이켜 보면 해방후 나의 아버지 (김 원 군) 는 아버지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는 민족의 환희와 흠모의 마음을 담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지었는데 불멸의 혁명송가를 창작한것은 나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무상의 영광이고 행운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태양찬가를 지은것은 남다른 재간이 있

지로 아버지에게도 운명전환의 길, 음악가의 보람찬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해방후 태양송가창작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기대와 념원이고 강렬한 지향이며 의지였다. 김일성장군님의 노래를 지어 아한다고,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불러갈 영원한 노래로 되게 잘 지어야 한다는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녀사의 가르치심을 고무되며 아버지는 수령님의 불세출의 위인상

운동장에 달려가 조국개선연설을 하시는 영명하신 그이의 영상을 뵈은 그날의 기쁨을 되새기며 흥분된 심정을 그대로 선물에 담았다. 폭상을 다듬느라고 매식도 밤잠도 잊은채 창작에 전념했

다. 마침내 작품은 완성되었

고 삽시에 온 나라에 파급되

었다.

연제인과 아버지는 그때

를 추억하며 자신이 일생

에 노래를 많이 지었지만

## 수기 겨레가 심장으로 더친 경모의 노래

어서가 아니였다. 아버지는 해방전 막별이군이였다. 평양과 원산 등지를 떠돌이하며 광산이나 철공소, 양장공장 같은 고역장에서 마소처럼 일하며 생계를 연명했다.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에도 콩토투로 지은 점심을 허리에 차고 왜놈들의 철공소에서 땀을 팔아야 했던 아버지였다. 왜놈들의 학정하에서 장차 화가나 음악가가 되려는 소망은 한갓 꿈에 불과했다.

수령님께서 강도일제를 쳐부시고 나라를 찾아주시어 수많은 조선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과 업적을 격찬하는 노래창작에 심혈을 바치게 되었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실현통 휘쓰는 항일의 전장에서 풍찬로숙하시며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피어난 자옥을 새기시며 일제의 100만대군을 격파하시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었다.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오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그려보며, 환희의 인파에 끼여 평양공설

일마전 집에 앉아 신문들 들여다 보는데 이제 겨우 유치원 높은반에 다니는 딸애가 어깨가 으쓱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내미는것이였다. 종이장에 큼직하게 그려진것은 다름아닌 개신문이였다. 어설프진 해도 《개신문》에 새겨진 백두산천지며 항일유격대원들의 형상 등 모든것이 재발이였다.

그림을 들여다보는 나에게 유난히 눈을 파고드는것이 있었다.

《1925—1945》.

얼마나 많은것을 말해주는 수자인가.

14살 어린신 나이에 조국해방의 큰 뜻을 품으시고 고향방향을 떠나신 그때로부터 김일성주석께서 넘어오신 험난한 혁명의 고비들이 력력히 새겨져있는 항일투쟁의 년대였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백두밀림과 만주광야를 주름잡으시며 일제를 전멸케 하던 승전의 력사가 그대로 아로새겨져있는 년대였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이 길에서 수령님께서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거치는 이역의 산야에 묻으셨고 떠나간 전사들의 령전에서 비분의 눈물을 삼키시었다.

불현듯 해방직후 고향 만경대를 찾으신 수령님을 부둥켜안고 왜 혼자서 왔는가고 같이 오면 못쓰다며냐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시던 할머니의 그 애타던 말씀이 되새겨졌다.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어 수난담던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행복, 참된 삶을 안겨주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그이는 침략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철

않는가. 개신문을 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고 찾으리라. 항일대전의 승리가 있어 오늘날의 승리와 행복이 있듯이 우리 겨레는 누구나 만복이 열린 때문으로 생각하며 개신문을 찾는다.

그림을 마주하고있느라니 먼 후날에 가서도 우리 후대들이 간고하였던, 그러면서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항일의 날과 달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가자, 개선연설을 하시던 수령님의 그 음성이 부응리마다, 나무마다 숨배여있는 모란봉기슭으로, 그이의 항일대전의 승리의 력사가 아로새겨져있는 개신문을 돌아보자.)

나는 딸애의 손목을 잡고 개신문으로 향했다.

리 경 진

